

1.글로벌 채권

* <뉴욕 채권> 국채가격, 제조업에 이어 서비스업 지표까지 호조를 보임에 따라 Fed의 연내 기준 금리 인상 기대가 커져 하락

* 국채가격은 민간부문 고용 증가가 시장 기대에 못 미쳤음에도 비둘기파 연준 위원의 금리 인상 발언 영향으로 소폭 하락 출발했다가 ISM 서비스업 PMI가 11개월래 최고치로 오르자 낙폭을 확대

* 올해 국채시장의 강세 동력이었던 ECB의 양적완화 정책이 축소될 것이라는 보도가 전일 등장한 점도 시장 매수세를 약하게 함... ECB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우려감에 ECB의 초저금리 정책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아일랜드 등의 국채수익률이 일제히 상승

* 국채가는 오후 들어 유가 상승 마감에도 주말 발표되는 고용지표에 대한 경계로 낙폭을 소폭 줄이는 선에서 움직임

[미국]

2y 0.83% (+1.0bp)

10y 1.70% (+1.6bp)...약 3주 만에 최고치

30y 2.42% (+1.4bp)

[기타 10Y물]

영국 0.81% (+3.7bp)

독일 -0.01% (+5.0bp)

프랑스 0.32% (+6.3bp)

이탈리아 1.36% (+5.5bp)

스페인 1.03% (+5.9bp)

그리스 8.12% (+0.6bp)

2.글로벌 증시

* <뉴욕 마감> 예상을 웃돈 서비스업 경기 지표와 국제 유가 급등 영향으로 사흘 만에 반등

* 서비스업 지표가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서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였고 이는 금융 업종 강세로 이어짐

- 금융 업종 지수 1.5% 상승하며 가장 큰 상승 폭 기록

- 美 9월 ISM 서비스업 PMI 51.4 -> 57.1 (예상:53.0)...11개월래 최고

* 미 원유 재고가 5주 연속 감소 소식에 WTI 급등... 이에 따라 에너지 업종 지수도 1.41% 상승

- 美 EIA, 지난주 원유 재고가 300만배럴 감소했다고 발표... 5주 연속 하락세 (260만배럴 증가 예상)

* <유럽 마감> 국제 유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ECB의 점진적 자산매입 축소 움직임에 일제히 하락

* <도쿄 마감> 엔화 약세 영향으로 이틀 연속 상승 마감

전날 리치먼드 미국 연은 총재의 매파 발언으로 12월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고조된 것이 엔화 매도세로 이어짐

DOW30	18281.03	(+0.62%)
NASDAQ	5316.02	(+0.50%)
S&P500	2159.73	(+0.43%)
NIKKEI225	16819.24	(+0.50%)
SHANGHAI	3004.70	(휴장)
FTSE100	7033.25	(-0.58%)
DAX30	10585.78	(-0.32%)
CAC40	4489.95	(-0.29%)

3.글로벌 환시

* 달러화, 미국 경제지표 호조로 Fed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 기대가 커져 상승

유로/달러	1.1203	(-0.0001)
유로/엔	115.97	(+0.73)
달러/엔	103.48	(+0.60)
파운드/달러	1.27470	(+0.00213)
NDF	1114.50 / 1115.50원...1.05원 상승	

4.글로벌 상품

* <국제 유가> 미국 원유재고가 5주 연속 감소세를 보인 데 따라 상승

* <국제 금값> 단기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에도 경제지표 호조와 달러화 강세, Fed의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 등으로 소폭 하락

WTI 49.83 (+2.3%)
COMEX금 1268.60 (-0.1%)

5. 전일 국내 지표

코스피 2053.00 (-0.09%)
코스닥 685.44 (-0.06%)
원/달러 1113.70 (+5.90)
KTB 110.73 (-0.14)
LKTB 132.08 (-0.67)

6. 전일 국내 주요 금리

* 국고채 금리, 이틀 연속 큰 폭 상승.

- 미 금리 인상 우려 재부상 & 유로존 Tapering 가능성 & 영국의 Hard Brexit (영국이 EU와 관세 동맹 등에서도 완전히 탈퇴) 우려가 겹치면서 글로벌 채권 금리 일제히 상승.

- 국고채 30년물 입찰도 부진.

(국고 30년 0.85조 1.560% 낙찰...응찰 3.02조)

...전일 고시금리(1.505%)보다 5.5bp 높은 수준

1y 1.3310% (+1.60bp)
3y 1.3160% (+4.00bp)
5y 1.3290% (+4.50bp)
10y 1.5100% (+5.50bp)
20y 1.5570% (+5.60bp)
30y 1.5680% (+6.30bp)
CD 1.3400% (0.00bp)

7. 본드 스왑 스프레드

1Y -3.10bp (+0.25bp)
2Y -5.55bp (+0.20bp)

3Y	-3.10bp	(-0.50bp)
5Y	-2.90bp	(+0.25bp)
10Y	-14.00bp	(+1.25bp)

8. IRS/CRS 동향

* IRS, 미 금리 인상 경계로 외인의 3년, 10년 국채선물 매도에 상승 마감. 전일 한은 국정감사에
서 추가 금리 인하가 잘못됐다는 분위기도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침.

* CRS, 비드가 우세하여 상승 마감.

*IRS 금리

1Y	1.3050%	(+1.75bp)
2Y	1.2875%	(+3.00bp)
3Y	1.2850%	(+3.50bp)
5Y	1.3000%	(+4.75bp)
7Y	1.3200%	(+5.25bp)
10Y	1.3700%	(+6.75bp)

1*2Y	-1.75	(+1.25bp)
2*3Y	-0.25	(+0.50bp)
2*5Y	1.25	(+1.75bp)
3*5Y	1.50	(+1.25bp)
5*7Y	2.00	(+0.50bp)
5*10Y	7.00	(+2.00bp)

*CRS 금리

1Y	1.1750%	(+1.50bp)
2Y	1.0250%	(+1.50bp)
3Y	0.9750%	(+1.50bp)
5Y	0.9050%	(+2.50bp)
7Y	0.8450%	(+2.50bp)
10Y	0.8150%	(+2.50bp)

9. 주요뉴스

[해외]

* 美 경제지표

- 9월 제조업 PMI 51.5 / 종합 PMI 52.3...전월 수치와 예상치 상회
- 8월 공장재수주실적(MoM) 1.4% -> 0.2% (예상:-0.1%)...예상 밖 증가세
- 9월 민간부문 고용 175K -> 154K (예상:173K)...지난 4월 이후 최저 수준
- 8월 무역적자 -39.55B-> -40.73B (예상:-39.30B)

*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 연내 한차례 기준금리 인상 전망

- 오클랜드 연설 이후 기자회견에서 '美 경제지표가 현재 흐름을 이어갈 경우 올해말까지 한 차례 금리인상은 괜찮다'고 언급...'12월 유력하지만 11월 인상도 가능성 있다'
- 금리인상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며 향후 3년 동안 긴축이 진행되는 경로가 어떻게 될지가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
- 다만 앞서 연설에서 '아직 인플레이션이 2%로 향하고 있다는 뚜렷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보지 못했다' 면서 금리인상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지적을 하기도 하였다
- 연준 내에서 비둘기파 성향이 가장 강한 인물로 꼽히는 에번스 총재는 올해 FOMC에서는 투표권이 없으며 내년에 투표권을 갖는다.

* 리치먼드 연은 제프리 래커 총재, '현 경제 여건은 더 빠르게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하는 근거를 강화한다' 는 견해 되풀이

* 유로존 9월 합성 PMI 52.9-> 52.6 (예상:52.6)... 2015년 1월이후 20개월래 최저 기록

- 유로존의 경제성장 둔화는 기업들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러한 위축세는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BOE 부총재 '영국 경기상황은 걱정했던 것보다는 보통 수준'

- '강한 소비와 파운드화 약세 덕분에 예상보다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주택시장도 예상보다 좋았고, BOE가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은 금융시장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줬다고 설명

[국내]

* 9월 소비자물가 전년비 1.2% ↑ ...전망치 상회

- 전망치는 0.83% 증가...농축수산물 10.2% 상승 영향

* 한은, '금리인하 무용론'에 곤혹...추가 인하 막히나

금일 예정 지표

[ECB 9월 통화정책회의 의사록]

미국-실업보험청구자수 (예상:257K, 이전:254K)

독일-8월 공장주문(MoM) (예상:0.2%, 이전:0.2%)

유로존-소매 PMI (이전:51.0)